



충남도립대신문

CHUNGNAM PROVINCIAL COLLEGE NEWSPAPER

발행처 충남도립청양대학 신문사 발행인 총장 최석중 사장 박창원 교수 편집장 홍바다 발행일 2013년 2월 제36호 디자인 예당기획 TEL. 041-333-4405

충남도립청양대학이 만드는 신문



등록금 전국 최저수준!!

등록금 20% 인하

우리 대학이 등록금을 20% 인하했다. 이번 등록금 인하는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장 적절한 인하율을 20%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이 109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전 계열에 걸쳐 100만원 초반대의 등록금이 책정됐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저렴한 편인 데다, 도청이전 등으로 도의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이지만, 재학생 대부분이 도민 자녀인 도립대학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인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는 전국 도립대학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법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소영 audthdud94@naver.com

(단위 : 천원)

구 분	계 열	2012학년도	2013학년도	비 고
등록금	인 문 사 회 계 열	1,372	1,097	전년대비 20%인하
	공 학 계 열 자 연 과 학 계 열	1,662	1,329	



INSIDE

C2

- 우리 대학 글로벌특성화대학으로 도약
- 필리핀 어학연수 출발

C3

- 너희 용감함을 보여줘
- 영어 골든벨
- 장학금 지급률 최우수 랭크

C4

- 교명변경 시동
- 졸업식
- 충남도청 내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개원

C5

- 디자인과 벽화그리기 활동
- 제40회 작업치료사 면허시험 합격
- 봉사활동 동아리 웰니스
- 자치행정과 신정웅 대표 특강 나눔

No.1 FRESH COFFEE

ToPresso

토프레소 청양점



토프레소 청양점

달콤한 수다 & Topresso

- 프리미엄 샌드위치
- 벨기에식 와플
- 향기로운 커피
- 신선한 생과일 주스
- 빈티지풍의 인테리어로
-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 보는 즐거움까지

토프레소 청양점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1-3번지
TEL. 041)944-1259



특집보도 01

우리 대학 글로벌특성화대학으로 도약

우리 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수) 복수학위제 선발학생 8명에 대하여 선발증서를 수여함과 동시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캐나다의 Sprott-Shaw College와의 복수학위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복수학위제와 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취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종 현지생활 및 여건, 학생관리 등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 대학의 학생이 1차년 도에는 본교에서, 2차년 도에는 밴쿠버 소재 SSC에서 전공분야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복수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A 체결에 따라 우리 대학 학생들은 복수학위를 받은 후 캐나다 취업비자(3년)를 확보할 수 있어 해외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은 이외에도 복수학위제를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캐나다에서 Sprott-Shaw College와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17일에 싱가포르 3개 기관(싱가포르 에프티엠에스글로벌 아카데미(FTMSGlobal Academy), 다이멘션스 국제대학(DIMENSIONS International College), TTC(TTC Man power Pte. Ltd) 등과 학술교류 및 해외취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글로벌 인턴십의 운용 가능성의 폭을 넓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캐나다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우리 대학 학생 8명은 펜 퍼시픽 컬리지(Pan Pacific College)에서 12주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현재 캐나다 현지 업체에 취업 중이다.

• 명소영 audthdud94@naver.com



특집보도 02

우리 대학 학생 31명 필리핀 어학연수 출발



우리 대학의 재학생 31명이 지난 2월 5일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글로벌 인재 발굴 육성과 해외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들은 필리핀 세부 의과종합대학 부설 센터(CDU ESL)에서 4주간 어학연수를 받은 뒤 귀국한다. 이미 우리 대학은 작년 12월 11일 필리핀 어학연수 대상 학생 31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 수여식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연수생은 12개 학과 학생 중 어학과 학과 성적, 학과장 면담 등을 종합해 최종 선발했다.

• 이동복 iop6338@naver.com



대성마트

청양대학 정문 앞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14번지
041) 943-3546

전품목 10% 세일

고객신뢰가 쌓이고 고객감동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숙사 앞 다래슈퍼를 수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대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실용적이고 질 좋은 제품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화장지 30롤 12,000원
- 물 6개 4,000원
- 작은 물 1박스 7,000원
- 레쓰비 1박스 11,500원
- 산타페 1박스 8,500원
- 계란 1판 4,500원
- PT음료수 1+1 3,500원
- 피죤 1+1 6,500원
- 샤프란 1+1 4,900원
- 소주 1박스 24,000원
- 맥주 큰병 1박스 21,500원
- 맥주 작은캔 1박스 38,500원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지난 해 말 학생 식당과 학교 편의점 앞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불편 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방법은 패널위에 썸지지를 놓고 그 위에 요구사항을 적는 방식이었다. 급식사 자율점호, 버스 운행 횟수 늘려주기, 급식실 질 높이기, 매점시간 연장 등이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먼저 학교 버스와 관련해서는 버스 운행 횟수가 전보다 줄어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학교 운전 기사가 한 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버스 운행의 원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버스를 학교에서부터 읍내까지 운행하는데 약 5~6만 원 정도의 기름 값

이 들다 보니 예산관계 상 운행 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불편을 간과할 수 많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를 통한 버스의 운행 횟수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급식의 질 향상 역시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다. 우리 신문사는 이미 지난 34호에서 우리 대학의 급식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하루에 밥을 먹는 학생들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과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밥과 반찬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적 요인이 되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식비 역시 걸림돌로 보인다. 현재 우리 대학의 점심 식비는 1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 정도의 식비로는 급식의 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식사비를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것은 예산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또한 우리 대학 등록금이 2013년부터 20% 인하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충청남도가 도청 이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타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 대학의 당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점의 개점 및 폐점 시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되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 결과 매점의 폐점 시간을 1~2시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화반 학생들이나 도서관에서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 학용품을 구매하거나 적절한 간식을 제공받을 때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우리 대학의 정문 입구인 대학로를 좀 더 멋있게 꾸며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고등학교같이 너무 강하다는 불평을 토로하는 학생도 있었다.

• 김다인 ekdls69@naver.com

영어 골든벨

제1회 영어골든벨행사가 2012년 11월 15일 오후7시에 건설정보과 1학년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교육역량강화(대표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영어 골든벨 행사를 2012년 11월 15일 오후 7시에 건설정보과 1학년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건설정보과, 전기전자과, 환경보건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기존 골든벨의 형식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패자부활전 그리고 상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각 학과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40명의 출전 선수들이 총 50문항의 문제를 풀어나가며 그동안 갖고 닳은 영어실력을 뽐냈다. 최종문제까지 학과별로 1명씩 총 3명(윤희택(건설정보), 이충환(전기전자), 김준기(환경보건))이 남아 마지막까지 흥미와 긴장을 더하였다. 이 행사에서 영예의 최종 우승은 윤희택(건설정보)학생, 2등은 김준기(환경보건)학생, 3등은 이충환(전기전자)학생이 차지하였다. 이번 행사는 많은 동기 친구 선후배가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가운데 승자와 패자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훈훈한 행사였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사업단(대표브랜드)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학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골든벨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바다 ghdqkek2@daum.net



우리 대학 장학금 지급률 전국 최상위권

우리 대학의 장학금 지급률이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최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대학과 우리 대학의 상대적 위상을 살피기 위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장학금 지급률이 충청지역 대학과의 비교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타 도립대학과의 비교에서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이미 등록금 20% 인하로 학부모들의 어깨가 가벼워진 상황에서 장학금 혜택이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이미지가 구축되어 우리 대학의 위상이 점 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해영 sktkfk04@naver.com

도서관 건립

우리 대학의 학술종합정보센터로 사용될 도서관이 신축된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여러 부분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도서관의 신축은 지난 해오름관 건립에 이어 교육, 문화, 지식 등 「학술종합정보센터」로 활용하여 우리 대학의 학습 연구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신축 건물은 연면적(지하1층/지상3층, 2886㎡), 열람실(384석)규모로 49억원을 투입, 2013년 3월에 착공, 11월 준공예정으로 건립한다.

이번 신축 건물은 자연친화적 환경 및 에너지절약시스템으로 설계되어 태양광시스템과, 자연채광으로 에너지 절약과 연구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한 건물이다. 또한 부지 절토를 최소화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줄였다. 이번 도서관은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정보공간으로 구성되어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심화학습실, 영상정보실, DVD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 등 누구나 이용편리한 시설로 조성되어 사용자 중심의 건물로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진입로 확장(7m → 9m)을 통한 소통의 원활화와 주변 장애물 없는 생활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학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이 건축됨으로써 학과 신설 등으로 인한 공간 부족이 해소될 수 있고, 새로운 학습 연구 공간이 확보되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더욱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홍바다 ghdqkek2@daum.net



충남도청 내 우리대학 평생교육원 개원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첫걸음

우리 대학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의 일환으로 2월 5일 10시 충청남도 별관 2층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내·외빈 및 교육 수강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 현재 평생교육원은 충청남도 별관 2층에 398㎡(강의실 1, 실습실 1, 휴게실 1, 사무실)의 규모로써 2013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 까지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22개 강좌에 500여명의 수강생이 등록하여 1월 21일부터 3월 29일 까지(10주) 제1기 과정을 시작하였다. 개설된 주요과정을 보면 주간에는 바리스타, 도형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지도자, 리본아트지도자 등 민간자격 취득할 수 있는 과정과 컴퓨터기초, 생활요가, 한국화, 기타, 오키나 등의 교양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야간에는 인문학 교실, 부동산관리, 스피치리더십, 실용중국어, 국선도, 디지털 사진예술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석충 총장은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이전 가족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화혜택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바다 ghdqkek2@daum.net



제14회 학위수여식 거행

2월 14일 해오름 관에서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준우 도의회 의장, 졸업생과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졸업식은 학위증 수여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합격증서 수여, 우수학생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위 수여자는 총 461명으로, 전체 수석의 영에는 윤종민(남·33·컴퓨터정보과)학생이, 차석은 이슬기(여·22·뷰티코디네이션과)학생이 각각 차지해 표창을 받았으며 충남도 특별임용 합격증서는 총 11명의 졸업생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대학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저마다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학위를 딴 만큼, 대학에서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사회 진출을 앞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 우리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진다. 며 대학시절의 꿈과 도전정신을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2학년도 38명(공채 24·특채 14)의 공무원을 배출하는 등 지난 1998년 개교 이후 455명의 공무원을 배출해 공무원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또한 호주 테이프 대학(7명)에 이어 캐나다 팬퍼시픽대학 및 스포츠 대학과 인터십(8명) 및 복수학위제(8명)를 운영하여 해외취업에도 노력함으로써 글로벌 특성화 대학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13학년도 등록금을 전년대비 20% 인하 하고, 등록금 카드수납제를 실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 부담 경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 이해영 sktkfkd04@naver.com



교명 변경 논의 수면위로 떠올라

사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통과로 전문대학들도 학교 이름에 '교'자를 사용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충남도립청양대학'에서 '충남도립청양대학교'로 교명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교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이미 협소 지역명이 들어 있는 '청양대학'에서 광역 지역명과 협소 지역명을 동시에 나타내는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었다. 이에 더하여 '충남도립대학'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양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주민과의 친근성을 강조하자는 이유로 '충남도립청양대학'에서 '청양'자를 빼는 논의는 자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립청양대학에서
충남도립대학교로의
교명변경에 대한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도의원들이 충청남도에서 세운 대학임에도 청양군에 국한된 이름을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의 대체적인 학내 여론은 '충남도립청양대학' 보다는 '충남도립대학'으로 포괄 지역적 교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아무래도 광역 지역을 포괄하는 대학명이 타 지역의 인사담당자들이나 입시 교교생들에게 더욱 높이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교명을 일시에 바꿔 대학명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대학명에서 '청양'을 뺀 '충남도립'만을 강조하면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어 세운 대학이라는 학교 정체성이 선명히 부각될 수 있다. 현재 교명에서 '청양'을 배제하는 것은 학교 당국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청양지역 주민과의 그동안의 교류를 통해 본다면 심리적으로도 쉽게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양 주민의 입장에서 교명에 '청양'을 배제하는 것 또한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을 달리해 보면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충남도립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충남도립청양대학'이 청양을 벗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충남도립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대학이 청양에 있다는 자부심이 생길뿐만 아니라 군 홍보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양은 청양고추와 구기자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그런 인지도가 학문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이미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한정적인 지역명을 광역 지역명으로 바꿈으로서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경쟁률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생존의 무한 경쟁에서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는 졸업생 등의 취업률 향상 등을 위해서도 광역 지역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미 전국 대부분이 도립대학들이 협의 지역명을 배제하고 광역지역명으로 개칭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도 변화에 시급히 발맞춰야 한다.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자원봉사

우리 대학의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벽화동아리에서 청양지역의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약 2달간 청양 읍내 귀농인 자원봉사 센터에서 벽화그리기 작업을 실시했다.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택하여 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행사로 청양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귀농 여성들의 농촌생활 자립터로 이용되는 나눔장터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해영 sktkfk04@naver.com



봉사활동 동아리 웰니스

우리 대학의 봉사활동 동아리 웰니스는 1년 15회 이상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동아리 웰니스는 주로 충남지역(청양, 예산, 홍성, 서천, 공주, 보령)을 순회하며 통증관리 및 그룹치료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청양군내 요양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수공예 활동 및 그룹작업치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도교수님의 도움으로 치료와 평가를 통한 봉사활동의 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2006년 동아리 창단 1기 학생부터 현재까지 청양군내 지역 독거노인, 장애아동,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그룹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및 인지치료 등 부티코디네이션과와 함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충청남도민에 대한 봉사의 열의를 늦추지 않고 있다.

• 홍바다 ghdqkek2@daum.net



제40회 작업치료사 면허시험 합격율 전국 최상위권 성적



2012년 12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제40회 작업치료사 면허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전국에서 응시한 전체 1568명 중 953명이 합격해 60.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의 작업치료과 3학년 학생들의 합격률이 전국합격률 보다 월등히 높은 90.9%를 기록해 전국 작업치료과 대학 중에서 최상위의 성적을 거두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작업치료과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응원하는 등 선배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하였다.

• 홍바다 ghdqkek2@daum.net

자치행정과 신정용 대표 특강 「나눔」

2012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의 전문가특강이 열렸다. 강사는 신기산업의 신정용 대표로서 많은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특강에 참여했다. 강사인 신정용 대표는 우리 대학 자치행정학과 4년을 졸업한 바 있다. 신 대표는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힘겹게 회사를 이끌면서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아끼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특히 신 대표는 후배들이 공부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년 장학금 일천 만원씩을 수년째 우리 대학의 자치행정과에 기부하여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본을 보여주었다. 신 대표는 특강에서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요지의 강연을 하면서 추운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덥혀주었다. 자치행정학과에서는 이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신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 김다인 ekdls69@naver.com



양초산 교수 아시아그래픽트리엔날레에서 Best Designer of Asia 상을 수여



우리 대학의 양초산 교수가 아시아 그래픽 트리엔날레에서 총250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출품한 가운데 최고상인 Best Designer of Asia 상을 수여했다. 이 대회는 국제화 시대에 아시아 디자이너들과 문화적 소통을 통하여 아시아 그래픽 디자인 발전과 문화의 공감이라는 큰 장을 만들어 아시아 디자인 문화현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대회로서 2012년 10월 5일(금) ~ 10월 12일(금) 사이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한국, 대구시)에서 진행됐다.

- ▶ 제목 : Suubjective Interpretation of Korea
- ▶ 내용 : 한국의 인상에 대한 주관적인 재해석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 표출, 동양화적 표현과 그래픽적 요소의 만남 그리고 조화.

• 이해영 sktkfkd04@naver.com



전국도립대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국도립대학교수협의회 총회가 2월 20일부터 21일 양일 사이에 대전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전국도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선출과 전국 도립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학술주제 발표는 경남도립거창대학 안경모 교수의 <안식년제 연구>, 충남도립청양대학 광영길 교수의 <도립대학 발전방안>, 충북도립대학 김희대 교수의 <전국도립대학 교원업적 평가기준과 실적물에 관한 조사> 순으로 이뤄졌다. 그 외 전국 도립대학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도립대학 발전방안 등의 모색을 논의했다.

총회 이후에는 전국 도립대학의 부서장들과 회의가 연이어 진행됐고 회의 뒤에는 만찬이 이어졌다. 전국도립대학의 부서장들과의 만찬자리에서 前 전국도립대학교수협의회 김대원 교수는 각 대학교의 부서장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고 현재 전남도립대학교와 경남도립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공립대학교로서 교수협의회가 학칙에 삽입돼 있는 상황이며 국립대학교는 거의 모든 대학이 공식 기구로 삽입돼 있다고 덧붙이며 교수협의회 구성을 각 대학의 학칙에 정식 기구로 삽입해줄 것을 부탁했다.

• 홍바다 ghdkkek2@daum.net



내포 서해안시대를 열다

우리 대학의 자치행정학과 광호제 교수가 각 분야의 지리적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0월 17일 TJB에서 방송된 '내포 서해안 시대를 열다'에 출연을 해서 내포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전문적 견해를 펼쳤다. 우리 대학에서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호제 교수는 이날 조운 제도와 내포의 교통을 주제로 내포문화의 특성과 내포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망했다. • 김다인 ekdlis69@naver.com



정교수 승진임용

우리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김선진 교수, 환경보건과 백경렬 교수가 2012년 10월 1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돼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선진 교수(49세, 남)는 1999년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를 시작으로 학생지원과장, 기획교무과장,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現) 등을 역임했으며, 백경렬 교수(47세, 남)는 1999년 환경보건과 교수로 취임한 이후 기획교무과장, 대외협력과장(現) 등 다양한 보직을 수행해왔다.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2009년 10월 최초로 정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된 데 이어 다섯 번째 이루어진 인사로서 현재 교원 30명중 정교수 11명이 임용되었으며, 이번 승진은 어려운 대학여건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본교는 타 도립대학(약60%)에 비해 정교수 비율이 낮은 실정(약30%)으로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 이종복 iop6338@naver.com



김 선 진 교수



백 경 렬 교수

신입생에게 전하는 대학생활 Tip 4가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희망과 꿈에 부풀어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학기 동안 미팅과 소계팅을 하여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고 할 수 있겠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동아리를 들어가 나와 같은 이상과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청춘을 불태워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신입생을 거쳤고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전과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역시 대학은 고등학교 때와 다르구나.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줬더라면……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학과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학기 초라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건 그뻔 정말 선배님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3학번 충남도립청양대학 신입생 학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깨알 팁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착하고 개념 있는 신입생이 되기 위해선 대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지요? 그럼 두 눈 크게 뜨시고 시작합니다.

1. 교수님과 친해지세요!

나에게 부모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후, 대학생이 돼서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그야말로 대학생활 정말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멘토를 얻으시고 또 나아가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멘토는 또 다른 인맥과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 어떻게 구하냐고요? 고등학교 때의 담임선생님 처럼 우리를 살피고 돌봐줄 선생님은 없지만 우리가 선택한 전공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이미 전공 분야의 큰 성과를 거두고 사회에서 인정받으신 분들이 바로 교수님이시지요. 쑥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찾아뵙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강의시간에 눈에 띄는 내가 되어 보세요. 간단한 응답이나 강의시간에 맞는 적당한 질문을 추천합니다. 이러면서 강의에 열성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정말 좋겠죠? 또한 말주변이 없는 나라면 맨 앞줄에 앉아서 교수님과 “아이컨텍”을 하며 강의를 들어보세요. 사실 50명이 넘는 강의실에 뒤에 앉은 학생들은 교수님 눈에 띄기 힘들어요. 대학교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계속 그 자리를 앉다보면 저절로 내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충 학기 말의 학점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앞자리 2줄은 A+ 그 뒤로는 B+,B, C+,C, D+,D, F 로 시작 되더군요 학점은 노력 나름이지만 자리에도 분명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지각은 절대 하지마세요 1~5분이라 대수롭게 생각하고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의를 시작 하려는 순간에 한두 명씩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들 오히려 30분~1시간 지각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팁을 전수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건 바로 예의예요. 먼저 교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길 가다 교수님 만나면 눈 깔고 피해서 가지 말고 꼭 인사하세요! 교양이든 전공이든 교수님 얼굴 있어먹지 말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강의시간에 슬리퍼 신지 말고 모자 쓰지 마시고 대놓고 자거나 졸지마세요. 이럴 땐 강의시간에 조용히 뒤로 나가서 서서 강의들으면 교수님들께서 기특하게 보십니다. 이제 성인인 만큼 예의는 꼭! 꼭! 꼭! 지켜주는 센스가 아니라 필수죠! 다양한 계층, 고급 인력의 중심에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공분야의 지식과 열정을 갖춘다면 좋은 일자리를 쉽게 받게 될지 누가 아나요? ^^

2.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친해지세요!

비슷한 성적과 배경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동기들 입니다 대학에서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죠. 상대적으로 순수한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적은 노력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꽃피는 춘삼월 대학가 숲집에 가면 목청 터져라 외치게 되는 게 ‘동기사랑 나라사랑’ 입니다. 동기들과 MT도 가보고 술자리도 가지고 도서관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체육대회 등 힘든 일도 함께 해보고 기쁠 때 슬플 때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한 동기들이 나도 모르게 소중해질 거예요. 이렇게 동기들과 소중한 대학생활의 추억을 만드세요.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학기 중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별로 친하지 않던 동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동기들과 어울려 친해지면 훗날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선배와 멘토만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선배라고 해서 굳이 전공의 선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 학번의 선배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리고 직장인 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보다 어렸든 먼저 대학을 들어온 좋은 선배들이 많아요. 선배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면서 사회생활, 인간관계,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이점 꼭

영화감상 레미제라블



서구 철학사상 최고의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는 신의 존재에 대해 당위적 필요성을 강요한다. 그것은 신이 없다면 이 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진행되는 이 실존의 세계에서 인류에게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는 세계일까. 그러기에 칸트는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의 존재를 요구한다. 또한 칸트는 인류 구원

의 희망을 신의 존재요구와 함께 예술을 통한 인류의 희망을 기원한다. 예술이 우리 인류에게 새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미학의 창시자가 된 것은 감성을 철학으로 끌어들이며 예술의 인류 구원 가능성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영화의 예술성을 많이 살려낸 오페라 영화 ‘레미제라블’은 그러한 희망의 당위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민초들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혁명의 열정을 노래한다. 제목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 영화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과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인공은 가족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이유로 19년 형을 살다 가석방이 된다. 그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도피하여 숨어 지낸다. 그러던 중 어느 사제의 행동에 마음의 감화를 받아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광명한 세계로 나아간다.

이 영화의 배경인 1830년대는 프랑스 혁명기이다.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난을 이기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잡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하는 기계 부족품 같은 존재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배설물 위에서까지 잠을 자야만하는 등 각종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온갖 질병이 만연하는 생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고통 받는 자들에게 공화주의 학생들은 혁명을 통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주려 한다.

이 영화는 한 인간의 삶과 고통과 사랑을 통한 큰 전율을 우리에게 준다. 숭고한 아름다움. 왕정의 복귀에 저항하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혁명가들의 노래가 숭고한 전율로 다가오지만 그보다 더욱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주인공이 비참하게 고통 받는 고아를 돌보며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인간적 사랑이 가슴 절절히 공감으로 다가와 우리를 더 강한 숭고한 미적 전율과 작품의 슬픔에 동참시킨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너무도 부조리한 세계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한다. 그는 마들레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으나, 냉혹한 자베르의 추적을 받는다. 장발장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다. 장발장은 존경받는 시장의 신분임에도 마차에 깔려 죽어가는 시민을 위해 몸을 던져 살려내는 사랑을 실천한다. 또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검거돼 재판받는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경받던 시장인 자신이 범죄자 장발장임을 밝혀 스스로 위기에 처한다. 그는 창녀 팡틴느의 딸 코제트를 불한당들에게서 구제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탈출을 감행하여 코제트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에 빠진 그녀를 위해 혁명가인 젊은 청년을 죽음을 무릅쓰고 구해내는 희생을 다한다. 그 가냘픈 어린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역시 새로운 자기 구원에 도달한다.

얼마 전 드라마 ‘착한 남자’에서 등장하는 한없이 착한 현신의 모습 역시 현실성이 없는 사랑의 행위처럼 보였다. 세상에 과연 저런 사람이 존재할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것이 사실 칸트가 희망했던 종교와 예술의 세계가 목표로 삼아야 할 모습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 전공인맥도 없고 좀 더 많은 지식과 경력을 겸비한 직장인 선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방학기간 현장학습을 떠나 좋은 선배들을 알아 가는 거지요. 나이도, 경력도, 성격도 다양한 기준에서 많은 분들을 알아가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학습은 필수고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을 한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될 겁니다.

3. 리포트를 잘 쓰자

대학생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숙제 리포트.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나의 첫 리포트제출……. 리포트를 열심히 공책에 하고 공책 통째로 교수님께 제출을 해서 과에 웃음거리가 되었죠. 저 같은 경우가 없길 빌며 리포트쓰기를 알아봅시다. 우선 리포트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과제 내용과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은 A4를 이용한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교수님의 리포트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교수님 마다 원하는 리포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면서 나만의 리포트 노하우를 찾는다면 시험 빼고 B학점은 따 놓은 당상! 과마다 다르므로 이젠 각자 과선 배님들에게 물어본다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컴퓨터가 필요하기에 이럴 땐 비싼 돈 내고 PC방 가지 말고 우리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프린트도 같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 친필을 원하는 리포트에는 연필보단 볼펜을 이용하세요. 이때 주의할건 절대로 지저분해선 안 됩니다! A4에 글을 쓰기 어려운 사람은 매점에 파는 리포트 용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하여 과제를 전부해서 끝이 아닙니다. 리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겉표지를 리포트위에 붙여줍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 학번, 담당 교수님 성함, 과제제목 등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젠 교수님에 대한 예의겠죠?! 이때도 주의사항은 교수님 성함을 정확히 적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의 성함에 ㄱ자가 들어가는데 ㄴ로 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꼭 교수님 성함 뒤에는 교수님을 붙여 쓰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리포트 과제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리포트가 학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밝혀지면 오히려 감점 대상이예요. 좀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을 잘 풀어내는 것 이런 노력과 과정에 교수님은 큰 점수를 주셔요. 대학생활은 사회에 나가 기전의 과정들을 배우고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힘든 법이죠 이런 과정도 하나에 성장과정이라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알팁!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리포트를 레포트로 알고 있지만 레포트는 ‘리포트(report)’의 잘못된 말입니다. 기억하기~~~~~.

4. 중간고사에 올인하자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봅니다. 한참 학구열이 좋을 때 대학시험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공부해야하는가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별 차이 없고 다만, 이 또한 교수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시험은 달라지고 대부분의 문제는 교과에서 출제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OMR카드를 쓴다면, 객관식 주관식 비율이 나누어져있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교수님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리포트로 대체할 경우도 있고요. 취지는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고 같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답이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강의시간의 배운 내용을 잘 적합 시켜 답을 적어나가면 교수님이 그에 따른 점수를 매겨 주십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 답이 틀려서 틀리는 게 아니고 비록 답은 틀려도 식은 맞는다면 교수님에 따라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실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성들여 문제를 풀어나가면 원하는 학점을 꼭 받을 거라 봅니다. 이때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절대로 백지를 내진 마세요! 뭐라도 써서 내야 F학점을 면할 수 있기에!!! 아니라면 정중히 교수님께 재수강을 부탁드려 교수님이 받아들이면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이 목적이 아닌 다른 꿈이 있다면 재수강을 통해 다시 강의를 받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에요 이때 반드시 열심히 그 강의에 열성적으로 태도를 보여야 교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겠죠?! 말했듯이 시험대비가 어려워 ‘기말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도 많고 개강 초기라 풀어져 노는 경우도 많은데 장학금을 타려는 사람에게 중간고사가 ‘블루 오션’입니다. 사실 기말고사 때는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기말까지 망치면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정보도 없고 공부하기 막연한 중간고사를 남들보다 열심히 준비하여 다른 학생이 놀 때 높은 점수를 맞는 게 A+의 지름길이고 교수님과 조교님 선배님 친구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과의 에이스로 바로 당선이 될 수도 있기에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은 하기 나름이에요 백 번 천 번 말보단 행동이 중요하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후회 없는 알찬 추억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진심으로 이뤄져야 더 빛난다는 사실 청대 학우 여러분 청춘, 그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청춘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 홍바다 ghdqkek2@daum.net

다. 종교와 예술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현실에서 구원의 모습들을 형상화하는 인류 희망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열광하는 것도 우리가 미래의 희망에 대해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참하고 척박한 이 실존의 세계에 살면서도 더욱 생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부분이 예술을 통해 드러난다.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19 세기 프랑스 로망티즘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정치적 자유와 사회 정의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다. 은식기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해 주고, 구원의 길로 이끈 미리엘 주교의 모습, 장발장의 수많은 사랑과 열정의 행동들을 작품 속에 그려내면서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가 살고 있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희망을 보여주려고 싶었다. 이와 함께 한 인간의 사소한 죄가 어떻게 영웅적인 인내로써 빛을 발하는가를 보여주며 잔혹한 사회 속에서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 수 있는가를 가치 있게 꼽았다.

올해는 계사년 뱀의 해이다. 계사년 뱀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논설에도 불구하고 뱀은 척박한 땅에 그 징그러운 몸뚱이를 대고 기어 다녀야 하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이’라고 서정주 시인은 뱀의 비참함을 노래한다. 뱀이 용이 되는 꿈을 꾸다고 한들 그것은 현실적으로 뱀이 용이 되는 경우는 없다. 뱀의 유토피아는 어느 곳에도 없다. 유토피아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뱀의 해를 사는 우리 민초들의 삶 역시 척박한 땅을 온몸으로 기어아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의 척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이 때로는 예술의 사명이다.

19세기 자본주의와 공화 의 혁명을 꿈꾸며 죽어갔던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노래가 들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21세기 신자본주의의 폐해가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을 직업을 찾아 생존을 위한 몸부림치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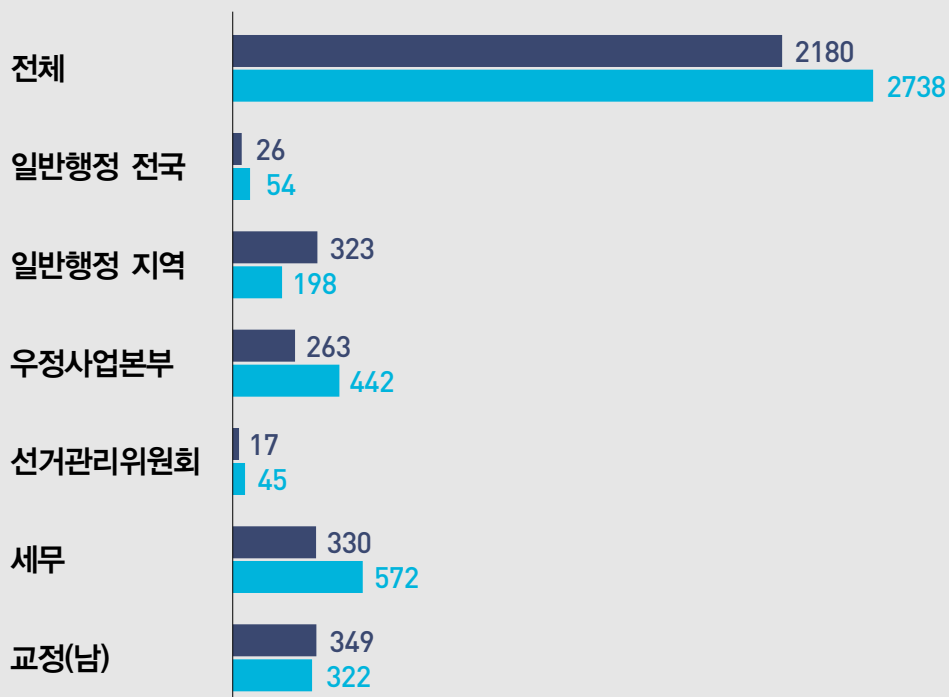
우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그 희망의 노래는 무엇인가! 그 희망의 노래를 빅토르 위고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 인테리어패션디자이너과 박창원 교수

2013년 공무원 4년만에 최다선발

선택과목 도입 영향으로 응시직렬 결정에 최대 변수될 듯

2012~2013년도 국가직 9급 채용인원 비교



정부는 올해 국가직 선발인원을 총 3천748명 뽑는다고 공고했다. 이 가운데 9급 채용인원은 2천738명이다. 이는 지난해 9급 선발인원인 2천180명보다 558명 증가한 것으로, 이 수치는 2008년 이래 4년 만에 최대 선발인원이다.

지자체와 선발인원을 비교해보자면, ▶일반행정 전국선발 26명→54명 ▶우정사업본부 263명→442명 ▶선거관리위원회 17명→45명으로 각각 늘었으며, 특히 세무직은 지난해 330명 선발에서 올해 572명 선발로 2년 연속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일반행정 직렬의 선발규모는 323명→198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부터 일반행정 직렬을 통해 일괄적으로 채용해 왔던 '고용노동부'의 채용인원을 ▶전국선발 43명 ▶지역선발 145명으로 명시해 따로 모집하므로 일반 행정 직렬의 모집인원도 증가한 셈이 된다.

그러나 모든 직렬의 선발인원이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93명을 선발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교육행정직, 관세직, 교정직도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줄어들어 공고문을 기다리던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부터는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되어 직렬 구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한 수험생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직렬이 있었는데, 막상 공고문을 보고 나니 선발인원이 많은 직렬에 응시해야 하나 흔들린다"라며 깊은 고민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선택과목 제도와 금년도 선발인원까지 발표됨에 따라 올해 국가직 9급 채용은 원서접수단계에서부터 수험생들의 눈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험생들은 자신의 소신에 맞춰 응시직렬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명소영 audthdud94@naver.com

기자후기

이혜영 기자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신문사 기자 활동을 하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한 학기를 지냈다. 처음 1학기보다는 학과일이 바빠서 신문사 일에 좀 더 열중 할 수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학과일이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론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 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여론이 존중되면 그만큼 대학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보사 활동은 항상 나에게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학기에는 학보사 일에 좀 더 열중하여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



이동복 기자

처음에 신문사에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신문사 기자로 활동 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갈수록 학교 정보를 알아가고, 축제 등 학교 행사에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재미있어 이제는 취미가 되었다. 그때부터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지금까 지 큰 문제없이 신문사 친구들과 회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신문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도 글을 쓸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웃으면서 함께 학교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분 좋다. 군에 입대하여 잠시 신문사를 떠나지만 제대 후 복학하여 더욱 활동적인 기자가 될 생각이다.



홍바다 기자

우선 이번 제36호 청양대신문이 나올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 동아리 선배님들이 1학기를 끝으로 신문사를 떠났기에 이번 신문 작업은 1학년 신입기자들만 해야 했다. 가장 큰 걱정은 반년에 한번 발행되는 신문이 우리 때문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자칫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선배님들의 성과에 먹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우리들끼리 푹푹 묻혀 한다면 못할 거 없다는 각오로 그동안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일들을 하나 둘 처리하여 천신만고 끝에 신문발간까지 끝을 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처럼 부족하고 서툴지만 정말 진정성 있는 신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신문에 가장 큰 소명이었다. 끝으로 실력 없는 편집장 믿고 열심히 해준 신문사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번 신문을 발행하면서 앞으로 우리 청양대학 학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깊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김다인 기자

처음부터 기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학교에 신문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고, 신문사가 있다고 해도 언제 인원을 모집하는지 몰랐었기 때문이다. 이러던 내가 기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는 한 기사를 보고 나서였는데 기사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사회의 문제점을 낱말로 밝혀주는 글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 혹은 권력의 부조리나 문제점을 밝히고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스스로 큰 용기가 필요한 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자는 권력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 있게 글을 쓴 점이 멋있어 보였고 감동으로 다가왔다. 애초에 공무원이 될 희망으로 청양대학에 입학했지만 훗날 기회가 된다면 유수한 신문사의 정식 기자로서 좋은 기사를 써보고 싶다. 좀 더 기회가 되고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금까지 나왔던 신문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모두가 고생해가며 열심히 만든 신문이니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소영 기자

이번 신문은 지난해 신문을 만들 때보다 구성인원이 확 줄어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갔고, 걱정했던 것보다 잘 끝낸 것 같아서 이제 좀 흥분해졌다. 다음 신문부터는 나도 참여하지 못하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기자들이 더욱 잘 해서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성산회관

대표 서상철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70-9
041) 944-1222

청양읍 십자로 사거리 LG주유소 골목안

육질 좋고 신선한 고기만을 정성껏 손질하고 양념하여 우성산회관만의 맛을 유지하고 있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직장회식, 가족모임, 손님접대의 자리로 손색이 없도록 모시고 있사오니 모임이 있으시면 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특선 해물칼국수 6,000원
돌솥밥정식 오리훈제(국내산) 13,000원
돌솥밥정식 삼겹살수육(국내산) 13,000원
낙지전골 9,000원
생버섯전골 9,000원
설렁탕(국내산 한우) 7,000원
도가니탕(호주산) 10,000원

도가니수육(수입산 호주산) 25,000원
삼겹살수육(국내산)중 15,000원
삼겹살수육(국내산)대 20,000원
육회 25,000원
낙지볶음 15,000원

생등심1인분 200g(국내산 한우) 26,000원
버섯불고기180Gg(국내산 한우) 15,000원
돼지갈비주물럭250g(국내산) 12,000원
삼겹살(국내산) 12,000원

